

企業研究所 설립이 쉬워진다

과기처, 신고·지원요령 正...이달시행

기업부설研究所 설립이 쉬워진다. 과기처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고 관리 및 지원요령을 개정, 관련 민원업무를 대폭 간소화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요령에 따르면 1개업체가 1개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주된 연구소의 分所로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가 다르거나 설치장소가 달라도 별개의 연구소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개업체가 복수의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관련민원서류도 대폭 감축해 신고서 첨부서류는 9종에서 6종으로, 특소세면제물품확인신청 서류는 5종에서 2종으로, 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4종에서 2종으로 각각 줄었다. 연구용품 관세경감신청, 연구용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신청업무는 관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밖에 연구소가 연구단지 또는 공동이용시설에 입주한 때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명칭위에 연구단지 또는 종합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과기처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앞

으로는 質的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지원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신고여건이 구비된 연구소는 설립을 인정하되 연

구개발투자 성과면에서 우수한 연구소를 선별, 중점 지원하고 형식만 갖춘 연구소는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本會 金寬衡 研修部長

科學의 날 國民褒章 받아



本會 金寬衡 研修部長 (사진)이 第 22回 科學의 날에서 科學 技術有功者 로 國民褒章 을 받는다.

4月 21日

韓國科學技術院 존슨강당에서 國民褒章을 받을 金寬衡研修部長의 공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發明科學技術발전 및 풍토조성에 기여

○ 공무원提案制度 실시 및 工業所有權法令개정등 工業所有權권한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特許行政發展에 기여

○ 發明家 및 企業人을 위한 發明振興獎勵事業과 發明特許認識提高 및 工業所有權 관리요원 양성업무를 적극 수행

2. 發明科學研究활동 및 技術開發에 기여

○ 전국 知的所有權관련기관, 여성단체, 대학, 기업등에 출강하여 知的所有權制度 및 發明技術研究개발교육 실시

○ 發明特許創業, 商標法解說, 企業의 知的所有權管理戰略, 輸出入實務 등 著書 펴냄.

3. 學生發明 科學技術 풍토조성

○ 科學技術處국립과학관에 출강하여 학생에 대한 發明科學 技術교육 실시

○ 전국 學生科學發明品 경진대회 審査委員으로 활약

4. 發明研究開發 활동전개

○ 實用新案 및 意匠 8건 등록
○ '84 뉴욕 國際發明展示會에서 銅賞수상

○ 實用新案權을 전용실시하여 물 하여 공장건설추진중에 있어 企業化에 成功 <☞>